



# 空士總同窓會報

發行人：韓周奭

編輯人：姜榮植

印刷人：金正振

(住所)：서울特別市 銅雀區 大方洞 358-1番地 (郵便)：156-020 (電話)：02-823-1091 (FAX)：02-823-1092 (非賣品)

## 회보 인덱스

2  
보안법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 뭔가?

3  
소크라테스의 遵法精神

4  
항공전략사상과 미래전(1)

5~7  
空士總同窓會 發展方案  
금강산 일기

8~10  
空士總同窓會 消息

11~12  
母軍·母校 短信

## 總同窓會의 면모를 쇄신

### 취임사

존경하는 先·後輩 同門 여러분!  
모든 면에서 不足한 점이 많은  
저에게 總同窓會의 會長職을 맡  
겨주신데 對해 個人的으로는 큰  
榮光으로 생각하나 우리 同窓會  
를 크게 發展시켜야 할 莫重한  
責務 앞에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  
니다.

그간 總同窓會의 再建과 發展  
을 爲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先·後輩님들의 勞苦에 敬意를  
表하며 그 동안 이룩하신 業績을  
繼承·發展시키는데 最善의 努力  
을 다하겠습니다.

空軍士官學校는 우리들에게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祖  
國과 하늘에 바친다”는 爲國·獻  
身의 精神을 심어준, 참으로 자  
랑스러운 母校요, 마음의 故鄉입  
니다.

그러한 母校가 벌써 開校한 지  
半世紀가 지나고, 새로운 21世紀  
에는 航空우주시대를 선도하며 國  
家の 安全과 利益을 保障하고 實  
現할 수 있는  
空軍士官學校  
로 發展하고  
있습니다.



會長 韓周奭(71)  
· 20대 공군참모총장

차제에 7,000  
여 명에 이르  
는 卒業生 星  
武人 모두가  
現住所를 다  
시 確認하고  
母校 發展에  
병행하기 위  
해서라도 總  
同窓會에 積  
極的으로 參  
與하여야 하  
겠습니다.

그렇게 함  
으로써 우리  
는 名譽心과  
自負心을 견  
지하고 서로  
믿고 도울 수  
있는 星武人  
의 自負心을

드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總同窓會의 運營을 맡은  
7次年度에는 先·後輩 卒業生  
모두는 자랑스러운 星武人으로  
서 總同窓會의 會員이라는 인  
식을 계고시키고 또한, 星武會  
員으로서 작으나마 어떤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는 우리 總同窓會의 면  
모를 쇄신시킬 수 있는 방향으  
로 事業을 計劃·實踐하고자 합  
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卒業生 모두가 빠짐없는 參與  
와 協助가 實질히 要求되고 있  
습니다.

따라서 先·後輩 同門 여러분  
들의 積極的인 參與와 지도편달,  
그리고 聲援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會員 여러분의 健康과 가정에  
幸運이 늘 함께하기를 祈願합  
니다.

## 星武

朴雄鎮 作詩

1

하늘의 꿈을 안고  
하늘에 씨를 뿌려

우리들의 마음 꽃을 피우고  
하늘 사랑 깊은 곳에  
불사조의 함성 영원하리라

2

먼저가신 전우들  
뜻을 모아 받들 때  
우리들 눈동자 이글거리고  
은빛날개 솟구쳐

새역사의 아침 더욱 밝아라

후렴

몸과 마음 다 바친  
조국 하늘에  
높고 푸른 미소가 넘실하구나



강용구(67)  
· 민주시민대학 교수

# 보안법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 뭔가?

지난 8월 10일 한·미 연합사령관 존 딜러리는 기자회견석상에서 한반도의 안보사항이 휴전협정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언급하였다. 그가 공개적으로 알려진 발언을 한 배경으로는 우선 한반도 안보는 사정거리 6,000km가 되는 제2호 대포동 장거리 미사일 발사 여부로 그 앞날이 매우 불투명하다. 북한이 작년 8월 말 국제사회가 사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광명성 1호 로켓을 쏘았을 때와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이번에는 발사계획이 미리 알려져 있다. 북한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재발사 실험을 감행하려고 하고 한·미·일 등 국제사회는 저지하려는 대결상황이다. 한·미·일 군사당국은 이것을 대북 여지력의 시범대로 삼고 있다. 그리고 근래에 MiG-21을 40대나 도입했다.

문제는 북한이 오판으로 한반도 전체가 위기에 휩싸일 위험성이 있다. '91년 이라크를 응징하기 위한 걸프전과 올해 나토의 유고폭격도 미국의 의지대로 이루어졌고 또 마무리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 행동이 옳고 그름을 차지고 그것이 엄연한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이제는 북한이 미국의 정책에 거슬리는 눈엣가시처럼 돼 있다. 다만, 클린턴 행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아직은 유지하고 있으나 미 행정부가 여론에 민감함은 우리 경우보다 훨씬 더 강하다. 북한이 범 서순을 줄 모르고 날뛰다가는 이라크나 유고의 다음 순번으로 거론되면 한반도 안보

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것이다. 다행히도 전해오는 보도를 보면 제네바 베를린에서 열린 미·북 미사일 협상의 새로운 진전을 보고 있다고 한다. 진전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유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대결주의를 청산하지 않는 한 한반도의 안보는 항상 위기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지난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밝힌 국가보안법 개정을 놓고 여야간 공방에 이어 정치권은 물론 국내 언론이 뜨겁게 일고 있다.

그 동안 북한의 대남적화력락을 방어해온 국가보안법을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길이 됐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위험한 안보상태에서 굳이 보안법을 서둘러 고쳐야 한 이유가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북한은 50여 년 전부터 교수혜은 적화동일의 기본 정책이 변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8월 5일부터 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가졌던 제6차 4차회담도 그들의 상투적인 주장은 미군철수,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해서 회의를 결렬되고 성과없이 끝났다.

어찌하여 정부는 그들의 요구만을 수용하며 즐기게 헛별정책을 지속하는지? 지금 국내에도 헛벗고 못 먹는 국민이 많은데 어찌자고 북한만 도와주고 있는지? 인도적이고 동포애를 앞세워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이나 위정자들의 횡건주머니 일간에 나도는 소문처럼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한 공명담이 조급이라도 작용하고 있다면 나라를 망친 정권으로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북정책을 시행하는 관계자는 잘 알아야 한다. 북한 주민의 특징은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의식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획일적이고 강요된 범위 내에서 김부자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과 당 혁명을 위해 목숨 바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있으며, 김부자와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비판을 큰 죄악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개인과 가족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집단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비도덕적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비료, 쌀 등 공짜로 준다고 그들의 의식이나 행동양식이 쉽게 변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관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외의 도전세력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체제수호를 위한 안보관련 형사법과 동시에 현행 형법을 보완하는 형사특별법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그 운용을 극히 제한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무조건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자행한 각종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들과 결부될 때 비로소 범죄구성요건상 반국가단체로 간주하고 적대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만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와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남전략을 명백히 포기하는 경우 이 법이 규율하는 적대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주로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응하는 방어적 목적의 형사법일 뿐 아니라 북한 체제를 전복하거나 위협하려는 목적을 가진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법이 아니고 북한을 사실상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고 있는 우리의 통일정책 기조나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의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정신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정책적 기조로서 상대방의 체제를 하나의 정치적 실체로 사실

상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과 실정법상 우리 체제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는 적대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그리고 인권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항과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조항들은 문민정권 시절에 개정할바 있다. 그런데도 국가보안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이 국가발전의 걸림돌 노릇을 하거나 악용을 하여서 그런 것인지? 정부나 여당이 보안법 개정 문제보다 더 시급한 국사가 산적해 있는 데도 보안법 개정이 보다 시급한 병역인양 취급하는 처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각급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보안법 남용을 막기 위해 법 적용을 엄격히 하고 있는 데도 운용의 묘는 생각하지도 않은 채 오로지 개정이나 일부 조항 삭제만이 능사인양 몰고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불고지죄(10조),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7조), 회합통신죄(8조), 반국가단체(2조) 개념을 재정의해서 법 적용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런 핵심적인 조항들이 삭제되거나 허술해지면 처벌할 수 없으며, 없는 사실을 꾸며서 김정일을 찬양해도 처벌 대상이 안된다. 또 회합통신죄가 없어지면 북의 단체와 남의 친북단체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타도를 주장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해도 죄가 되지 않으며, 남과 북이 팩스를 통해 공동 투쟁을 모의해도 처벌할 수 없으며, 간첩활동을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많은 법조인들의 의견이다.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는 데도 오로지 전쟁준비만을 일삼는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을 알면서 어찌자고 보안법 개정을 서둘러 친북활동의 공장을 넓혀주면 나라가 거덜난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위정자들에게 묻고 싶다.

## 99년도 하반기 군 전역(예정)자 창업 및 사회적응교육

### 1. 목적

장기복무 후 전역한 예비역 및 전역예정 군인에게 사회적응과 취업/창업에 필요한 예비직식 교육으로 사회적응력 배양 및 취업을 제고

### 2. 교육계획

- 가. 교육중점
  - 취업/창업정보, 창업실무, 소자본창업, 유망사업 업종소개, 생활정보 등
- 나. 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한 자 및 전역예정자
  - 다. 교육기간 및 인원
    - (1) 3차 : '99.10.18.~10.29.(10일간)/100명/1일 6시간 총 60시간
    - (2) 4차 : '99.11.1.~11.12.(10일간)/100명/1일 6시간 총 60시간
  - 라. 교육장소
    -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인력개발센터(지하철 5호선 공덕역 ②번 출구)
  - 마. 교육비
    - 무료(단, 중식은 개인부담)

- 바. 교육주관
  - 한국군사문제연구원(국방취업지원센터)
- 사. 주요 교과내용
  - ① 소자본 창업
    - 사업아이템/선정/타당성 분석
    - 입지선정/상권분석
    - 사업계획 수립
    - 창업세무/회계
  - ② 창업 성공/실패 사례
  - ③ 창업/취업자기 사례
  - ④ 소상공인지원센터 소개
  - ⑤ 유망사업 업종 소개
    - IP사업 - SOHO사업
    - 무역업 - 유통업
    - 외식사업 - 텔레마케팅
  - ⑥ 생활정보
    - 재테크(금융, 부동산)
    - 건강관리 - 취업가이드
    - 생활법률 - 직업선호도 조사

### 3. 행정사항

- 가. 교육 중 복장은 간편복(사복) 착용

- 나. 교육기간 중 중식은 구내식당에서 단체급식
- 다. 교육 참가신청(마감시한 : '99. 10. 2.)
  - (1) 전역예정자 : 감동책임부대장 승인 후 부대 또는 개별 신청
  - (2) 기 전역자 : 개별 또는 소속단체에서 신청
  - (3) 신청서식

소속	군번	병과	전역(예정)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급	성명	근속연수	차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 예비역은 소속, 군번 생략

라. 교육문의/제출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국방취업지원센터  
전화 : (02)431-7093~4, 국방부 : 1460, 사자 : 5137, FAX : (02)400-2844  
주소 : (우)461-79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참곡동 사서함 122-11호





박종권(9기)  
· 한국군사학회 이사

# 항공전략사상과 미래전(1)

## - 제공권 사상을 중심으로 -

### 1. 서 언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지난 100년 동안 어느 때보다 많은 전쟁이 있었고, 처음으로 항공기가 등장했다. 마침내는 항공기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했고, 문명의 모습과 인류의 역사를 바꿔 놓았다. 집단 과학병기도, 최고의 전쟁 무기인 항공기를 앞세운 최근의 전쟁과 전투들은 현대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그 동안의 많은 전쟁과 전투 중에서도 미래전의 양상을 명쾌히 시사해 준 전쟁은 1991년의 걸프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91년 1월 미국과 다국적군에 의하여 개전되고, 43일 만에 종결된 걸프전을 일컬어 세계의 매스 미디어들은 "첨단무기체제의 시험장", "공군력에 의해 주도된 최초의 전쟁" 또는 "제3의 물결형 전쟁의 시작" 등으로 표현했다.

이는 곧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공군의 독립과 공중우세를 강조하면서 공군 제1주의를 주장하던 초기 항공전략 사상가들의 이론이 반세기를 지나면서 걸프전에서 비로소 입증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거쳐 한국전쟁, 중동 6일전쟁, 월남전쟁, 이라크 전쟁, 이스라엘의 오시락 원자로 공격작전과 레바논 전투, 포물랜드

의 접근대적 운용으로 전쟁승리의 핵심전력이 바람직하게 건설되지 못하고, 현존 항공전력마저도 각 군별로 분산되어 기본교리인 항공력 불가분의 원칙마저 무시된다면, 21세기를 준비하고 있는 선진 각국의 전력과 항공력 우위사상에 비추어 소탈대일의 지적이 될 것이다.

### 2. 항공전략사상과 제공권의 의미

항공전략사상의 깊은 이해와 믿음이 아니라도 현대전이 남긴 생생한 교훈과 역사적 사례가 미래전의 양상을 예측케 하고 전쟁역제 신개시 전승의 군사력이 무엇인지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선진국 군사교리가 잘 시사해 왔음에도 후·중진국은 항공사상의 이해부족도 있지만 자군의 이해관계 때문에 국방정책의 방향과 과감한 전략지침을 내리지 못해 왔다.

그 동안 항공전략사상가들은 제2차세계대전 이전부터 전쟁의 승리는 제공권에 있게 될 것임을 역설해 왔다.

항공력이 초기부터 발달해 온 유럽이나 미국에선 항공전략이라는 개념을 일컬어 "전쟁에서 항공력의 총체적인 운용계획"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영국의 공군교리에서는 항공전략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첫째, 항공력을 사용하여 적 공군력을 억제·봉쇄 및 격멸하는 제공권 통과, 둘째 대지·해상전력에 대

### 두해의 기본적 주장과 사상

쥘리오 두해(Gkullio Douhet, 1869~1930, 이태리)는 항공전략 사상가 중 가장 대표적인 이론가로 꼽힌다. 당시 지상우위의 고전적이고 보수적 세력 속에서 그는 완전히 혁명적인 신전략사상가로 할 수 있다.

두해는 전쟁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그에 따른 항공세력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전쟁이란 근본적으로 서로 삼면되는 의지간의 싸움이다. 전쟁이 수행되는 공간은 전쟁의 근본양상을 결정한다. 공중은 또 하나의 새로운 작전분야이며, 항공기는 지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속도가 빠르며, 수송방법이 용이하기 때문에 가장 우수한 공격무기이다. 따라서 이는 지금까지 근본적으로 지상에서 발달해 온 전쟁의 성질을 새로운 형태로 변하게 한다..."

### 미래 전쟁에서는 과거의 대륙을 통제했던 것보다 더 쉽게 전세계를 통제

두해는 일찍이 항공기는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잠재력을 가진 공격무기가 될 것이라 예상하고 이론을 정립한 것이다.

그는 공중을 새로운 작전분야로 인식하고 항공력이 공격무기로써 전쟁승패의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 그것은 공군력만이 갖는 특성이 될 것이라 했다.

그는 항공전략사상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공중 또는 지상의 항공기를 공격하여 파괴함으로써 제공권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이 사상의 중심이고 그것이 제공권 개념의 요체라 할 수 있다.

그의 제공권 사상은 "자신은 비행능력을 보지하면서 적의 비행은 억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상대적 공중우세 확보이론으로 제공권을 장악한 국가는 적의 공습으로부터 자국의 영토를 보호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적의 육·해상작전을 위한 적의 지원활동을 저지함으로써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제공권 확보방법으로는 공중의 적 항공기를 격추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적 지상기지의 항공기, 화물차, 시설 및 생산수단을 파괴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는 것이다.

특히 적의 항공력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지대공 무기보다 공중 공격 및 공중전투가 효과적이고 제공권의 확보는 공군력만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 미헬의 항공전략사상과 영향

미국 공군은 미첼을 공군의

아버지라 부른다. 미 콜로라도 스포팅스에 있는 미 공군사관학교 생도식당의 이름도 "미첼"을 이다. 미첼(William E. Mitchell : 1879~1936, 미국)은 또한 미국의 두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그는 영정적인 항공기 만능자로서 공군우위를 부르짖고 미 육군항공단에 공군을 독립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다.

미첼은 초기 항공전략사상의 제2인자이며, 항공전력의 전술적 운용에 대한 제1인자라고도 할 수 있다.

그는 미 해군의 항공력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첼은 자기주장이 강하고 직설적이어서 육군에 계속 당시 항공력을 과대포장함으로써 타군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군법에 회부되어 지위를 박탈당하는 곤경을 치르기도 했지만 결국 그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고, 육군으로부터 공군독립과 발전에 불허의

공격을 남겼다.

미첼의 사상은 항공력만이 국가의 안보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도구이며, 항공력이 전쟁승패의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공력을 통하여 세계적인 군사전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다.

항공력은 공중에서 그 어떤 것이든 모두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했으며, 전세계를 덮고 있는 공중은 항공기로서 어디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항공력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미첼은 앞으로의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항공력으로 제공권을 획득해야 하며, 국민의 운명이 공중을 통해 통제된다고 주장했다. 즉, 과거에는 대륙의 시대로 지상군의 세력이 세계를 지배되었고, 다음은 해양세력을 통해 상업의 보급을 유지하여 지상세력을 얻매고 구속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가 우주항공사단에 와있기 때문에 항공수단이 세계 지배수단으로 발전한 것이라 했다.

그의 전략사상에는 제공권 획득으로 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세계지배전략을 암시했지만 그런 사상적 암시는 다음과 같은 대륙에서 엿볼 수 있다.

"미래 전쟁에서는 과거의 대륙을 통제했던 것보다 더 쉽게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기의 도래는 모든 국가와 세계를 더 좁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국가는 완전한 제공권을 획득함으로써 과거보다 지구를 더욱 지배할 수 있다."

### 2000년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무엇보다 첨단 과학무기를 중심으로 질적 우위의 군사력을 건설해야...

전쟁 등 기간 수많은 전쟁과 분쟁에서 항공력은 전승의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입증했지만, 특히 걸프전은 항공전력이 현대전에 있어 선도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임을 입증했다.

남북 분단의 군사대치 현상과 2000년대 통일국가로서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도 첨단과학무기를 중심으로 한 질적 우위의 군사력을 건설하고 준비해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우수 인력의 양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국가안보의 핵심전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군사전략을 수정하고, 그 전략지침과 정책지침에 따라 군 구조변화를 지상군 위주에서 공군 위주로 바꾸고 통합되고, 점예화한 항공력으로 장악된 제공권 속에서 각 군의 전승의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미래전을 예측하면서 아직도 과거 지상군 우위정책과 군 구조

한 활동으로 우군의 지·해상 및 해저전력과 합동으로 항공력을 이용하여 적 지·해상군을 억제·봉쇄 및 격멸하는 활동이고, 셋째 전략적 항공공세로 적 전쟁능력을 파괴 또는 무력화하기 위해 정밀작전을 수행하는데 총체적으로 항공력을 통한 사용하는 것이라 설명하면서 그중 공중우세 확보를 위한 제공작전에 항공력 사용의 우선권을 부여할 것을 공군교리에 명시하고 있다.

항공력이 급속히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기술과 정책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지만, 군사사상 및 이론을 근간으로 한 작전교리가 무엇보다도 항공력의 발달과 군 구조의 변천을 갖고 오는 큰 추진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항공전략사상의 창시자들로는 두해, 미첼, 세바스키와 트랜차드 등이 있으며, 이들의 선각자적 사상의 제창과 투쟁이 항공력 발달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 空士總同窓會 發展方案



강영식(7기)  
· 공사총동창회 사무총장

## I. 序 言

동창회란 뜻은 동창생들의 모임이란 뜻이며 일명 校友會라고도 한다. 동창생이란 뜻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같은 학교출신자,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한 자들을 말하며 同門 또는 同學, 同窓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미국 같은 영어권에서는 동창생을 단수와 복수 개념으로 구분하고 女子동창생과 男子동창생을 구분하여 말한다.

男子동창생의 단수는 Alumnus로 표기하고, 복수 男子동창생은 Alumni라고 구분하여 호칭한다.

女子동창생의 단수는 Alumna로 표기하고, 복수 女子동창생은 Alum-nae라고 구분하여 부른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동양권은 男子, 단수·복수 관계 없이 동창생이라고 호칭하며 복수 표현이 필요할 때는 동창생들 정도로 부르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학교의 동창회라는 조직은 있고 역사와 전통이 있을수록 그 위력은 막강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X X 대학교 또는 X X 고등학교 등 알 만한 동창회가 있고 自體 會館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데도 있으며 이들 동창회는 모교의 발전을 위한 많은 활동과 후배들의 지도와 사회진출에 길잡이 역할을 크게 한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학연이란 것으로 社會의인 역기능도 있으나 순기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各軍 士官學校는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第3條 入學資格(教育法 제111조), 第6條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教育法 第79條 제3항), 第8條 학위수여(教育法 第109條와 第110條) 등 대학교육의 핵심요소는 교육법 규정을 준용하거나 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제되어 있으므로 일반 大學校와 똑같은 大學 教育기관인 것이다.

따라서 空軍士官學校 卒業生이 空軍士官學校 總同窓會 會員이 되는 것은 임의 선택 사항이 아니고 필연적인 절대사실인 것이다. 혹자는 국적이 바뀔 수도 없고 바뀔지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이민을 가거나 정치적 망명으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바뀔 수 있지만 學籍은 이민·망명·사망으로도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년간 50년을 되돌아 보면 당연히 존재하고 육성·발전되었어야 할 동창회가 社會的·政治의인 상황으로 結成과 해산을 반복하는 부침의 세월을 감수하여야만 했고 그 결과 50년 전통의 空軍士官學校 同窓會가 아직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행히도 몇 년 전부터 동창회 활동이 재개되어 몇몇 先賢배내들의 노력으로 이제 막 6살바기 동창회가 되었으

며, 우리 공사총동창회 회원들은 이 6살바기 총동창회를 키우고 발전시켜 명실상부한 총동창회로 육성, 발전시킬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① 三軍士官學校 總同窓會 結成과 해체의 역사와

② 三軍士官學校 總同窓會 現況을 개관하고

③ 空軍士官學校 總同窓會의 發展方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 II. 三軍士官學校 總同窓會의 結成과 解體

1. 空軍士官學校 總同窓會는 1952년 5월 공사 2, 3, 4기생도 시절에 生徒自治會 五星會로 命稱하고 發足하였다.

五星會의 目的은 생도 상호간의 개성 발전과 함께 친목도모를 主目的으로 하였으나 1953년에 三期生의 主要任員 多數가 退校 歸國함으로써 自治會인 五星會가 解體되었다가 1955년 4월에 당시 생도 전대장이었던 김종보 소령(공사 1기)이 총동창회 회장으로 당선되면서 五星會가 再發足하여 동창회의 재건과 회원들의 친목도모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봉 서주하는 동안 1960년에 4·19 혁명의 여파로 다시 해체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1963년 6월 공사 1기생 출신 장교들이 주동이 되어 천영성 대령(공사 1기)을 회장으로 선출하여 三次 發足을 하였으며, 그 후 삼당파간 동창회의 기본 목적달성을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부대별 및 동기생별 동창회 활동이 강화되었으나, 1973년 정부의 유신정책 여파로 1973년 10월 세 번째 해체되는 운명을 맞이하였다. 그 후 1993년 초까지 약 20년 동안은 총동창생은 있어도 총동창회가 없는 기이한 현상의 세월이 계속되었다. 1993년 初 國民정부가 탄생하고 각계각층의 민주화와 자유와 물질이 일어나면서, 공사총동창회 재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뜻있는 동창회원들이 몇 차례의 모임과 토론을 거쳐 1993년 4월 디어 대망의 총동창회를 네번째로 결성하였다. 당시 空士同門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1기부터 6기생 期生會 長協議로 총동창회를 結成하였으며, 1993년 6월 각 기생회장(1기: 손주현, 2기: 박재성, 3기: 신장성, 4기: 한영규, 5기: 심병림, 6기: 전춘우)들은 손주현(1기) 장군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영등포 지하철가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였다가 1994년 공군 복지단으로부터 사무실 집기류를 지원받아 대방동으로 이동하여 1995년 1월 6일 현관식을 거행하고 본격적인 동창회 활동을 시작하였다.

1997년에는 이전에 사용하던 별칭인 五星會를 星武會로 개칭하였다. 이는 空軍士官學校가 星武廳라는 별칭과 같은 의미의 별칭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개념의 통일과 호칭의 통일성을 기한 것이었다.

1998년에는 동창회사무실이 있는 지역이 母軍의 환용 계획에 따라 현재의 사무실(보라매의 집 옆)로 이동하여 보다 쾌적하고 회원들의 활동이 편리한 사무실을 갖게 되었다.

앞에서 그간의 難足과 해체를 거듭하면서 四次 再結成까지 부침의 과정을 개관하였다. 이제 그간의 활동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970년 이전의 활동상황은 주로 상부상조와 친목도모에 치중하였고 상호 연락 등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나 1970년 이후 회원의 증가와 조직의 비대화로 보다 체계적인 조직과 운영회칙의 필요에 의하여 1970년 7월 18일 조직개편과 회칙개정이 이루어졌다.

개편된 조직을 살펴보면, 회장, 부회장과 그 밑에 삼임위원회를 두고, 총무부, 기획부, 재무부, 사업부 및 각 지구분회와 각 기생회, 대의원 총회를 두는 조직으로 구성되었다.

개정회칙 주요 내용으로는(요약),

◆ 제2조(目的) ① 회원상호간의 친목양상과 복리증진 ② 인격도야 ③ 전통적인 명예선양 ④ 모교의 발전에 공헌한다.

◆ 제4조(會員) 정회원 및 명예회원

◆ 제7조(會員의 權利·義務) 회원의 권리는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및 분회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회원의 의무는 회칙 및 분회 결정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회칙 및 제칙 준수서무, 소정의 회비 납부 의무).

◆ 제41조(財政) 회비 및 기금 증대와 활동에서 취득하는 이익금

◆ 제45조(入會) 공군사관학교 졸업과 동시에 입회 등 위와 같은 조직과 회칙에 준거하여 총동창회는,

① 순직자들의 유가족과 전역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순직자 및 전역자의 명부 작성

② 총동창회 회관 건립을 위한 모금 시작(전역자들이 부담없이 만날 수 있는 자리 마련 목적)

③ 三軍士官學校 체육대회 지원

④ 순직 발생시 조의

⑤ 국군의 날과 현충일 행사시 화환 및 조화 증정

⑥ 전역회원들의 취업 알선

⑦ 동창회비 발간

⑧ 졸업 및 입관식 지원 등

이와 같이 많은 사업을 해왔으나 1973년 근내 비인가조직의 해체 명령 후 정상적인 총동창회 활동이 중단됨에 따라 모든 사업도 중단되었다.

四次 發足한 공사총동창회의 조직과 회칙 및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조직은 회장, 부회장, 감사와 실무 부서로 사무총장을 두고 있으며 각 기생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회칙의 중요 내용을 요약하면,

◆ 제2조(目的) 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 ② 모교의 전통과 명예 계승 ③ 모교의 발전에 기여

◆ 제3조(會員) ① 정회원 ② 준회원 ③ 명예회원

◆ 제5조(會員의 權利) ①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1) 현역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동기생 회장에게 일괄 위임할 수 있다. ①-2) 현역은 임원 피선거권을 유보한다. 단, 기생회장은 예외로 한다.

◆ 제6조(會員의 義務)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분담의 의무가 있다.

◆ 제21조(隊員) ① 임원의 연회비 ② 회원의 기본회비(연회비 또는 평생회비) ③ 특별찬조금

위와 같은 조직과 회칙에 준거하여 총동창회는,

① 재정차입도 향상을 위한 기금 조성(평생회비 납부)

② 공사 동문 명부작성 배포

③ 총동창회 회보 발간

④ 우수 졸업생 시상

⑤ 위문 배지제작 배포

⑥ 三軍士官學校 체육대회 지원('99년부터)

⑦ 기법 초청 간담회

⑧ 모교 부대 방문(예비역)

⑨ 회원증 발행

⑩ 경조사 연락망 구축

등 우선 시급한 업무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실질적인 복지 증진 및 친목도모와 모교지원 등 본연의 목적 달성에는 많은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년년히 이어가면서 최종 목표 달성(後達)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海軍士官學校 總同窓會는 1950년 총무회란 이름으로 생도대장 양해경 중령(해사 1기)의 주도로 설립되었다.

설립목적은 海士 卒業生 또는 교직원 상호간의 친밀한 관계와 연락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같은 시기에 같은 목적으로 재교생도로 구성된 생도 자치기관으로 육포회도 설립되었다.

그 후 총무회의 활동이 미미해지고 유망무실해지자 1955년 당시 해군사관학교 교장 정경모 대령(해사 1기)의 주도로 해사총동창회로 총무회가 재건되었으며, 卒業生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였고 총무회 회장은 海士 校長이 당연직으로 맡게 되었다.

(5면에서 이음)

그러나 1973년 상부 지시로 해산되고 각 기생별 동기생 회관이 광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선·후배간의 공존된 유대관계가 없게 되었다. 그러다가 1989년 9월 총동회가 해산되고 육포회로 재탄생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陸軍士官學校 總同窓會는 11기 임관 전에 동창회 구성을 위하여 동창회 회칙을 마련하고 그 명칭도 북극성 동창회라 칭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족시키도록 하고 11기 동기회 회장단에 인수·인계되어 왔다.

그러나 1960년 4·19 동 정치·사회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태동의 꿈은 키워오다가 1961년 4월 30일부터 陸士總同窓會가 北極星 同窓會란 이름으로 정식 발족하고 강재륜 대위(육사 11기)가 취임하고 동창회의 고유 기능을 친목·단결·절차탁마·미래지향·진취성 등에 두었다.

당시의 회원 자격은 1955년 이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전원으로 규정하였다가 1972년도 회칙 개정 때 육사입교 후 외국사관학교에 유학하여 임관된 전원으로 한다고 자격을 확대하였다.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他 士官學校와 大同小異하며 준회원과 명예회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북극성 동창회의 주요 활동내용은,

- ① 회보발간 ② 화랑의 심자군(월남전 참전수기) 발행 ③ 회원경조사 지원 ④ 三士 體育大會 지원 및 응원 ⑤ 신입장교 축하연 개최 및 현충일 추도식 개최 등이었다.

위와 같이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단체로 성장해 왔으나 군 내외의 여러 사정으로 동창회의 존속이 불가능하여 1972년 8월 1일부터 해체되었다. 陸士의 북극성 동창회가 해체된 후 1980년 8월 예편 동창 중심으로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를 위하여 청백회가 구성되었으나 2년 동안의 활동을 끝으로 해산되었다. 그 후 1995년 7월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결성되고 김점곤 회장(예. 소장)이 취임하였다.

이 육사 총동창회는 11기 이후 예비역 장성들로 구성된 佛岩會 會員들의 주도하에 추진되어 왔다.

1998년 3월 31일 개정된 회칙에 의하면 本 동창회의 목적(제2조)은 비정치·비영리 단체로서 육사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의 구분과 자격(제5조)은,

- ① 정회원은 육사를 졸업한 자 및 육사에 재학 중 전쟁으로 인하여 부득이 다른 교육기관에서 입관 또는 졸업한 자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에 따라 정회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② 기타 준회원, 명예회원을 구분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 회원의 권리는 본 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규정을 위반할 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는다.
- 회원의 의무는,
- ① 규정에 의한 소정의 회비 납부 의무
- ② 회칙을 준수하고 본 회의 결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

③ 陸士人의 명예와 품위 유지를 위한 노력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주요 활동 사항은,
- ① 지역별 친목회 설립 : 국·내외
- ② 초빙강연회 개최
- ③ 회보 발간
- ④ 同門 친선경기 대회(정구, 바둑, 등산)
- ⑤ 개교 기념행사 공동개최
- ⑥ 부대위원
- ⑦ 회원복지 증진 및 개발
- ⑧ 불우이웃 봉사활동
- ⑨ 기타 세미나, 답사, 학교 발전기금 모금 동참, 졸업행사 참석, 우수졸업생 시상 등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以上에서 三軍士官學校 總同窓會의 結成과 解體의 歷史와 현재까지의 현황을 살펴본 바와 같이 自生의 發足과 政治的·社會的인 이유로 해체를 거듭하다가 1973년 以後 약 20년간 등변의 세월을 보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이한 현상은 廢足 初期와 再發足, 三次 發足 등 1973년 해체 이전은 各軍 士官學校에 근무하는 現役장교들에 의하여 主導되고 발전되어 왔으나, 그 이후 20년의 잠복기간 후에는 예비역 同窓生이 주도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III. 三軍士官學校 總同窓會 現況

- 1. 會員의 區分(표 1 참조)
- 2. 基金 造成 現況(표 2 참조)
- 3. 會費 納付制(표 3 참조)
- 4. 연간 운영비 비교(표 4 참조)
- 5. 三軍士官學校 共히 회보발간, 동창회장 시상, 초청 강담회, 모군방문 등 기본적인 친목도모 및 연락유지 단계임.

이상의 제 현황을 살펴보면 회원의 구분과 일반사업은 비슷하나 회비 납부제도, 자금조성, 운영비 예산은 각군 사관학교가 상이한 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이런 상이한 제도 아래서도 각군 사관학교 특성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IV. 空軍士官學校 總同窓會 發展 計劃

空士 總同窓會의 會員은 空士 47期 卒業 會員까지 포함하여 현재 6,789명('99. 6. 30. 현재)이며, 이중 순직·사망·이민 등 실질적으로 參與할 수 없는 會員은 364명이며, 參與 可能會員은 6,425명이다. 이중 예비역 1,749명, 현역 4,67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 중 평생회원 납부자는 328명('99. 6. 30. 현재)으로서 4.8%에 불과하고 기금조성액 132,000,000원의 25%(32,80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있다.

그 동안 1次年度부터 6次年度까지 운영기수 선배님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기금의 대부분을 조성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총동창회의 운영 방법은 매년 1個 期數가 순차적으로 인계·인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그 운영비 또한 운영기수의 회장·임원·운영기수 동기생회에

서 대부분을 부담하고 각 기생의 임원회비와 약간의 광고수입 및 外部 찬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회칙에는 1차 연임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으나 막대한 운영비 부담 때문에 현재까지 연임 기수 회장단은 한번도 없었다.

총동창회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 계획의 입안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회장단의 입기와 선출 方法의 개선이 요구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자립도 완성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앞으로 총동창회의 발전 계획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가. 지금까지(1次年度부터 6次年度까지)는 재발족 초기단계('93. 4. ~ '99. 6.)로서 재발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기본 組織의 定立, 會期 및 各種 行政 處理 節次의 수립, 基金 造成의 努力 등 初期 단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노력과 정성으로 정착의 기초를 확립하였다고 하

겠다. 나. 이러한 좋은 뜻과 훌륭한 터전을 이어 받은 운영 기수는 전 회원들의 뜻을 모아 성장·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成長·發展 단계를 1999년 7월 ~ 2004년 6월까지로 정했다.

구체적인 계획 내용은,

- ① 財政 自立度 完成을 위하여 基金을 10억 원 確保코자 한다. 즉,
- ◆ 既 造成基金 : (132,000,000 원)
- ◆ 會費 納付 誓勸 : (570,000,000 원, 미납 회원 : 6,097명)
- ◆ 新規 會員 確保 : (100,000,000 원, <250명×5년>)
- ◆ 其他 찬조 및 후원금 : (198,000,000원, <4,000만원×5>)

등을 납부 및 모금하여 目標額을 달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위의 目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연역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예비역 회원은 각 기생회별로 100% 납부 운동을 전개해야 하겠다.

표 1. 會員의 區分

軍別	區分	定會員	准會員	名譽會員
空 士		卒業 後 任官	入校在學 未 卒業	연고자 中 이사회 후대 총회 任職
海 士		"	"	"
陸 士		"	"	"

표 2. 基金 造成 現況

軍別	區分	基金 造成	備 考
空 士		132백만원	1999년 6월 30일 현재 평생회비 32,800,000원
海 士		420백만원	1999년 3월 31일 현재(육포 39호) 참조
陸 士		미확인	

표 3. 會費 納付制

軍別	區分	平生會費	年會費	期別會費	贊 助 金
空 士		10만원 (현역, 예비역)	회칙 제21조에 제도는 있으나 未施行	운영기수 제도 회장 : 500만원 운영기생회 : 500만원	운영기수 임원 : 50~100만원 각 기별 부회장 : 20만원 각 기별 이사 : 10만원 기타 찬조금, 광고
海 士		-	현역 : 1만원/연 예비역 : 2만 4천원/연	-	회장, 임원 찬조 기타찬조, 광고 자문위원 찬조
陸 士		20만원 (현역, 예비역)	2만원/연 (현역, 예비역)	50人以下 期 : 20만원/연 50人以上 期 : 50만원/연	총회임원 (50만원/연) 이사(30만원/연) 기타 찬조, 광고

표 4. 연간 운영비 비교

事業費	空士('99)	海士('99)	陸士('96)
사업비	1,778만원	3,070만원	3,400만원
관리운영비	2,068만원	4,319만원	2,600만원
계	3,846만원	7,389만원	6,000만원

\* 육포 39호 \* 육사 50년사

(7면에 계속)

(6면에서 이음)

지금까지 현역 同門의 會員納付가 저조한 것은 총동창회 가입 후 납부하는 것으로 개념의 혼돈이 있었으나 총동창회 회원은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졸업입관과 동시에 회원자격이 자동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며 회비 납부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재정립은 다층스럽게도 최근에 공군본부와 협의되어 각 기생별로 자진 납부토록 하고 미납자는 전역시 납부를 통용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며 향후 졸업하는 신규회원은 졸업 입관시 일괄 납부하는 제도로 개선·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타 찬조금은 공사 및 공군 유관기관과 업체 및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을 구해야 하겠다.

둘째, 회원들의 회비 납부와 아울러 작은 것부터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겠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 즉 회보 발간, 우수졸업생 시상, 배지제작 배포, 모군부대 위문,

초청 간담회 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면서, 회원증을 발급하여 모교의 出入과 체력단련장 이용의 편의제공과 각종 복지증진 방안을 발굴해 나가야 하겠다.

다행히도 회원증 발급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이 공군본부의 배려로 긍정적인 방침이 결정되었으며 공군사관학교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지어질 것이다.

이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 대상은 총동창회 회원 및 동행자로 하고

◆ 출입 가능장소는 체력단련장, 항공기 전시장, 퍼레이드장, 박물관, 종교센터, 생도회관, 하늘공원, 낚림/라켓볼장 등이고

◆ 출입 시간은 일과시간(주말 및 휴무일 포함) 내로 하며,

◆ 출입 절차는 제1정문에서 총동창회 회원증과 기지내 배용하는 것으로 출입 및 방문 전차가 모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셋째, 會員의 참여 확대와 홍보 강화 및 현황을 보고하고 발전방향을 토의하기 위한 Grop別

(약 5~6개 期) 회장단을 초청하여 간담회와 토의를 꾸준히 전개하여 상호 이해와 협조 및 참여를 유도해 나가야겠다.

넷째, 회칙을 개정하여 조직을 확대하고 회장단의 임기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총동창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여야겠다.

즉, 회칙 개정 내용은 준회원 과 명예회원, 자문단, 고문단, 후원회 등을 확대 보강하여 회원의 폭을 넓히고자 하며, 회장단의 임기를 장기화하여(2년에 1차 연임) 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과 집행이 가능토록 하며, 회장단도 기수와 관계없이 회원들의 존경과 신망을 바탕으로 人格과 德性을 겸비한 회원 중에서 선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

다. 성장 발전 단계(1999. 7. ~ 2004. 6.)가 完成된 後에는 定章 完成단계(2004. 7. 以後)로 선정하고 재정 자립도 완성을 전제로 다각적인 총동창회의 目的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실질적인 친목 및 복지증진과 모교의 발전후원, 유족 및 유자녀에 대한 후원, 장학제도의 도입,

취업알선, 공사 발전기금 모금 활동지원, 모교의 홍보 등 많은 사업을 발굴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 V. 結 言

현재까지의 總同窓會는 재박졸한 지 이제 겨우 7次年度에 이르고 있다. 그간 기초를 다지고 발전의 토대를 이룩한 선배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고 앞으로 僉務를 이어받을 사람은 보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同窓會는 母校와 母軍의 發展에 기여하는 것이 미미하고 物心兩面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發足 初期 段階이다. 특히 우리 空士總同窓會는 기금조성면이나 참여율이 있어서 他軍士官學校 總同窓會에 比해서도 低調하여 발전 속도를 배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모아 해낼 수 있는 신념과 집념으로 총동창회가 조속한 기간 내에 제자리를 잡고 영원 무궁토록 발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겠다.

# 금강산 일기

1999년 5월 1일 토요일(맑음)

연초부터 계획했던 금강산 관광 길에 오르는 날이다.

동해시로 향하는 차창 밖으로 흐르는 산하의 신록이 점차 짙어 가는데 “願生高麗國 一見金剛山” 이라 노래했던 옛 中國人들처럼 天下第一의 名山을 볼 수 있다는 기대와 반세기 없어버렸던 옛 땅을 찾아 볼 수 있다는 흥분에 들떠 있던 마음이 동해시에 가까워지며 점차 현실적으로 대치 상황하에 있는 적지인 북괴로 들어간다는 점과 아직까지도 확실하지 않은 平和기조가 염려스러워지면서 열은 불안감에 잠겨버린다. 그리고 가더라도 짐사탕과 次敷를 달리해 가서, 만일의 사태에 대처해야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조국이 있고, 어떤 사태에 직면하더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겠는가 하는 믿음 속에 떨쳐버리고, 국가가 이처럼 든든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실감해 보는 것이다.

동해시에서 현대 금강호에 승선한 것이 오후 4시가 넘어서고 출항은 오후 7시가 넘어서야 이루어졌다.

직선거리 100mile 미만에서 공해상으로 나갔다가 잠정함으로 돌아 들어가는 우회항로가 199mile. 시간상으로 약 12시간여가 소요되지만 반쯤만 헤쳐서 그나마 멀리 돌아서도 갈 수 없었던 곳을 찾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새로운 감회로 다가오고, 어두운 밤바다를 가르는 파도소리가 여정을 더한다.

1999년 5월 2일 일요일 (흐림)

선장을 깨고 보니 금강호는 이미 잠전함에 도착했고 선창 밖으로 눈에 실은 북괴군함이 맴도는 것이 불안스럽다. 조식 후 부실한 부두사정으로 바지선으로 갈아타고 잠전함에 상륙하는 동안 금강호에 탑승했던 800여 관광객들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노년층이 대부분이었으나 가벼운 흥분과 감회에 마음 바쁜 듯 서둘러고 있다.

잠전함을 둘러싸고 있는 금강산 출기들은 이미 범상함을 벗어났고 멀리 비로봉을 비롯한 금강의 연봉은 삼기 안개 속에 아련하기만 하다.

공사 15기 최성열 전 제11전투비행단장 전 삼성항공 임원 현 GEC-Marconi 상임고문

선착장에 닿으니 제일 먼저 우리를 맞는 것은 시별건 바람에 흰색글씨로 쓴 환영 플래카드, “금강산 관광객을 동포의 뜨거운 심정으로 환영한다” 처음에는 “합니다” 하면 어디가 더تنا? 하는 생각과 더불어 반세기만에 찾아오는 동포를 향해 존대도 하해도 아닌 ‘한다’의 표현을 쓴 그들의 불편한 심사를 헤아려 주어야겠다 생각이 되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한구석 뜨거운 환영의 표시, 따사로운 현재의 정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적대와 경계의 눈초리만 빛날 뿐, 곳곳에 늘어선 정·사복 인민군들은 소리없는 압박과 위협으로 동포를 맞는 것이 아닌가?

통관 절차를 끝내고 관공버스당 약 30명씩 조를 짜서 버스로 온 정리를 거쳐 만물상 코스를 향해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동안 200m 간격으로 휴먼지 속에 늘어난 인민군들, 그리고 철조망, 그것도 모자라 이중 철조망 공사가 진행중이고, 또 그 넘어 수려한 강산의 웅장한 암벽에 함부로 새겨진 김부자에 대한 찬양 구호들...

아직도 녹지 않은 동토, 우리는 휴전선을 넘어 북녘 땅에 와서도 또 다른 휴전선에서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만물상 등정 출발점에 도착한 것이 오전 11시, 등정 후 오찬은 너무 늦을 듯 싶어 금강호에서 준비한 도시락으로 오찬을 먼저 하면서 행여나 반찬부스러기라도 떨어뜨려서는 안된다는 조장들의 끊임없는 교육 탓에 할 수 없이 타율적인 자연보호에 동참하면서도, 너무나도 무질서하고 더럽혀진 남녘의 산하와 대비해보며 자율적으로 환경보호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만물상 코스는 삼선암, 귀면암, 안선대, 천선대, 망양대로 이어지

는데 ‘가’ 반 하산과 ‘나’ 반 등정으로 좁은 산길은 미어터질 듯 싶고, 더디고 더딘 등정이 서울 교통체증 같은데 올려다보고 또 가다가 올려다보는 기기묘묘한 형상이 그렇게 아가자기할 수 없고, 전설을 꾸미면 꾸미는 대로 형상이 변화되는 신기한 나라의 동화 속 같은데 끊임없는 암석의 행진들 속에서 나는 모든 속세를 잊고 삼상의 세계로 든다.

올려다 보는 것과 마주보는 것, 그리고 내려다 보는 형상이 각각 다른 만물상!

올려다 보는 만물상의 백미가 귀면암이라면, 내려다 보는 곳은 천선대! 그리고 만물상과 동해바다를 같이 아우르는 곳은 망양대라고나 할까?

조물주는 천지를 창조하면서 마지막날 하루를 빌어 금강산을 빚었다고 하는데; 웅장하고 세미(細美)가 같이 어우러진 산, 금강산! 우리 산하에 늘상 보아오던 그런 산이려만, 보고 또 볼수록 특별한 기쁨이 다르고, 기상이 다른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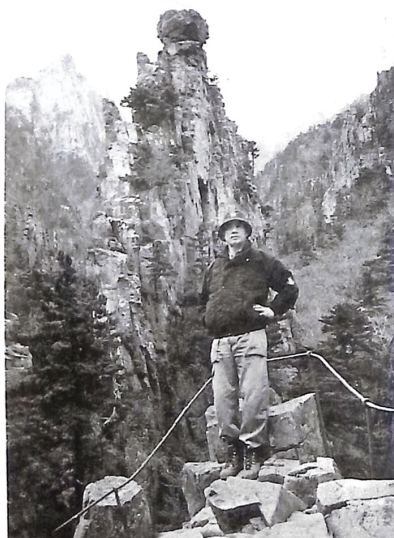
우리는 열혈적이고 목말라하며 가파른 산길을 따라 잃었던 어머니 품속 같은 산속을 거닌다.

아! 몇몇 해던가? 말로만 듣고 꿈 속에서만 노닐던 세월이...

그러나 아직은 봄이 오기 전, 잔설이 심술 쿨은 세월... 산에서 초차 억제되고 제재된 숨막히는 세상, 지나간 세월도, 앞날의 희망도 예기할 수 없는 이상한 나라. 오직 남은 건 감시와 경계, 그리고 가시와 위선뿐, 나는 멍을진 가슴을 산애아리로 달란다. 이렇게 해서라도 서글픔을 달랠 수밖에...

연제 다시 이곳에 올 수 있으려나? 그리고 내일인을 온다고 기약할 수 있으려나! 걱정되고, 염려스러워 “내 생전에 다시 올 수 있을까”하며 기를 쓰고, 사력을 다해 오르고, 또 오르는 이 나라의 불쌍한 노인들을 나는 연민의 정을 가지고 본다. 아니, 나 자신 연민의 대상이 된 오늘을 기억한다.

(다음 호에 계속)







(8면에서 이음)

空士 1期 會長團 總同窓會 來訪

지난 7월 26일 공사 1기생 회장단(회장 김영환(예 : 소장) - 一行이 공사총동창회를 격려차 방문하여 많은 격려와 발전방향에 대한 많은 下效와 좋은 말씀을 해주었다.

6次年度 會長團 招請

지난 8월 13일 공군회관에서 6차년도 회장단을 초청하여 공사총동창회 발전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지난해의 보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하였다. 특히, 그 자리에서 6기 선배님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평생회비 납부를 빠른 시일 내에 完納하기로 하였다.

空軍參謀次長 來訪

지난 8월 23일 공본 참모차장(이여수 중장)님께서는 인사참모부장을 대동하시고 지난 7월 12일 공본 예방시 포의된 사랑의 결과를 브리핑하여 주시고 애로사항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시켰으며, 특히 공사총동창회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로 하였다.

會長團 陸軍士官學校 同窓會 訪問

지난 8월 27일 공사총동창회 회장 및 임원들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를 방문하여 육사총동창회 운영에 관한 브리핑을 받고 상호 애로사항과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空軍戰鬥發展團長 來訪

지난 9월 10일 공군전투발전단장(박성국 소장)께서는 공군참모총장 50주년 행사계획에 대하여 회장단에게 브리핑을 하여 주시고 성원을 부탁하였으며, 본회 會長께서는 행사준비에 여념이 없는 공군참모총장 이하 전장병의 노고를 치하하고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을 보내기로 하였다.

空士總同窓會 發展計劃 說明會 開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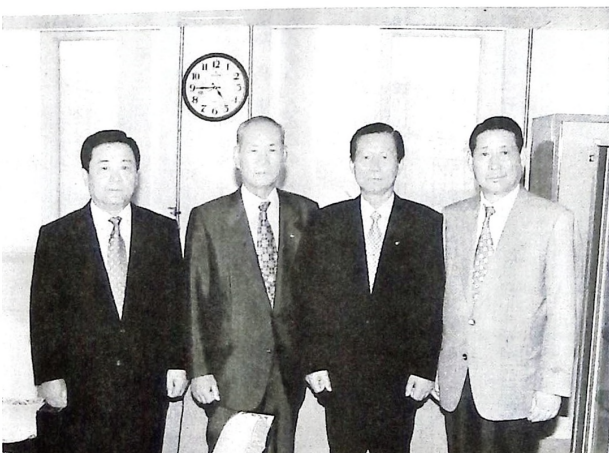
공사총동창회 회장단은 지난 9월 11일 공사총동창회 현황과 발전계획을 역대 참모총장님께 보고하고 앞으로 동창회의 발전 계획이 早期에 達成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하였으며 역대 참모총장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招請 懇談會 開催

공사총동창회는 7차년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9월 16일 공군회관에서 역대 회장님과 1기부터 6기까지의 회장단을 모시고 초청간담회를 가졌다. 본회 회장은 그 자리에서 공사총동창회 5개년 발전계획을 보고하고 참석 역대 회장 및 동문들께서는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으며, 특히 회비 납부는 각 동기생회가 주동이 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완납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오랜만에 부활된 三士體育大會 지원과 응원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하였다.

李養鎬 前 國防長官, 金鴻來·李光學 前 總長 來訪

지난 9월 17일 전 국방부장관(8기 이양호) 및 전 공군참모총장님들(10기 김홍래, 11기 이광락)께서 본회 회장단의 노고치하와 격려차 방문하시어 금일봉을 찬조하시고 본회 발전을 위한 高見를 피력, 적극적인 동참과 후원을 약속하셨다.



수재민 의연금 전달

1. 수재민 의연금 전달
지난 8월 12일 역전의 공군사관학교 출신장교들이 모교와 모교의 발전을 돕고 회원 상호간의 친선과 정보교환을 위한 모임인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韓周爽 회장과 회원들이 수재를 담하여 고생하는 주민들에게 一金 100만원을 의연금으로 조선일보사에 전달하였다.
2. 空士 27期인 김상경, 허광서, 손태용 중령은 수재민 의연금을 一金 1,000만원을 조선일보사에 기탁하였다. 비록 작은 돈이지만 자기들을 이만큼 키워준 국가와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로서 수재민의 고됨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원했다.
'79년 임관한 공군사관학교 27期 동기생들은 지난 6월 임관 2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평소 조금씩 모아왔던 2,000만원 중 행사비로 500만원을 쓰고 500만원은 순직한 동기생 자녀를 돕고 나머지 1,000만원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수재민의 연금으로 전달한 것이다.

三軍士官學校 體育大會 支援 誠金 傳達

그간 중단되었던 三軍士官學校 體育大會가 부활됨에 따라 본회에 各 同期會에서는 自發的으로 支援 誠金을 모아 지난 9월 21일 母校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선배들도 同參하는 뜻에서 本會 및 各 同期會에서는 自發的으로 支援 誠金을 모아 지난 9월 21일 母校에 전달하고 필승을 당부하였다.

Table with 2 columns: Donor Name and Amount. Lists names like 韓周爽, 1期生 김영환, etc., and amounts ranging from 50만원 to 100만원. Total: 1,820만원.

\* 시간관계로 미납한 동기회는 다음 구좌로 입금하면 추가로 전달하겠습니다.
한빛은행 319-155579-02-001, 예금주 : 공사총동창회

平生會費 納付者 名單

(1999. 9. 27. 現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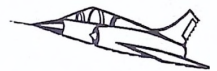
- List of names and amounts: 姜金金 (17) 10만원, 然錦永 (17) 10만원, 直經煥 (17) 10만원, etc.

(10면에 계속)





# 母軍 · 母校 短信



## 항공 50주년 기념행사

신뢰받는 21세기형 강한 공군 건설의 기반을 다지는 해에 공군 항공 50주년을 맞이하여 지나온 반세기의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미래 공군의 지표를 제시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공군 항공 50주년 기념행사는 1950년부터 항공기념일 행사를 공군 단독으로 실시하여 오다가 1956년부터는 국군의 날 행사로 통합 실시하여 왔으며, 금번 항공 50주년 기념행사는 44년 만에 실시되는 공군 단독 행사이다.

### ▶ 순회 에어쇼

공군력의 화려함을 유감없이 보여줄 수 있는 에어쇼가 예정에 따라 10회 정도 실시되었다. A-37 에어쇼, 군악 및 의장 시범, 지역 예비역 초청, 호국 문예 행사, 공군홍보관 운용 등으로 짜여진 이번 행사는 10월 3일까지 계속되었다.

일 자	장 소
9. 1.(수)	예천
9. 4.(토)	광주
9. 5.(일)	사천
9. 8.(수)	군산
9. 11.(토)	김해
9. 12.(일)	대구
9. 15.(수)	수원
9. 18.(토)	해미
9. 19.(일)	종원
10. 2.(토)	성남(서울)
10. 3.(일)	

### ▶ 국제학술세미나 및 전시회

교리발전 세미나, 항공우주무기체계 세미나 및 전시회, 항공전략 국제학술 심포지엄 등을 통하여, 21세기 항공력의 역할과 공군교리 발전, 항공우주무기체계, 전자전 무기체계, 모의훈련체계, 21세기 초의 한국 공군력 건설방향을 제시하게 될 이번 항공전략 국제심포지엄이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5일간 계룡대와

공군대학에서 개최되었다.

### ▶ 행 · 패러글라이딩 대회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강원도 영월에서 공군사관학교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행글라이딩/패러글라이딩 모두 장거리 속도감주 방식으로 기량을 겨루게 되었다.

또한 특별행사로 소경향항공기 축하비행, 군악 및 의장시범, 사진전시회 등 다양한 볼거리도 함께 준비하였다.

### ▶ 방공포병 화력시범 및 방공 무기 전시

영공방위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방공포병의 위용을 과시하는 유도탄 사격대회가 9월 20일 대천사격장에서 개최되었다.

방공포실사격과 방공무기전시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호크 3개 포대, 나이키 1대 포대, 미스트랄 1개 포대, 제플린 1개 포대, 대공포(발칸 M55/450.40mm)가 참가했다.

### ▶ 공군 사진전

하늘에서 펼치는 전투조종사들의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를 진기한 항공사진으로 엮어냄으로써, 50주년을 맞는 공군의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고 신뢰받는 21세기형 강한 공군의 이미지를 국민들의 가슴속에 전달하기 위해 서울, 부산, 광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기 간	장 소
9. 29.~10. 6.	전쟁기념관
10. 8.~10. 12.	부산시민회관
10. 15.~10. 21.	광주남도예술회관

### ▶ 50주년 경축기념행사 및 항공 축제

10월 2일 11시부터 거행된 이번 50주년 경축행사는 참모총장 임석하에 예비역, 주한 외국군, 언론인 등 각계 인사 1,000여 명

이 참가하는 성대한 행사로 거행되었다. 기념식 이후에는 KT-1, F-16, A-37 등 총 70여 대의 항공기가 참가하는 에어쇼가 펼쳐졌으며, 공군의 발전상을 보여준 전시장도 함께 운영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44년만에 공군 단독으로 개최하는 경축행사로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것이다.

### ▶ 항공우주의학 국제학술대회

공군사관학교에서 10월 6일부터 3일간 개최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항공우주의학 발전과 비행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태지역 230여 명의 항공우주의학 관련 인사가 참석하였다.

학술발표, 세미나, 학회총회 등으로 이어진 이번 행사를 통해 항공우주의학 분야의 발전과 비행안전에 크게 기여를 한 것으로 기대된다.

### ▶ 항공우주법 국제세미나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거행될 이번 행사는 새 천년의 항공우주

정책 및 주요 과제와 방향을 고찰할 목적으로 국내외의 400여 명의 석학이 참석하게 된다.

새 천년의 항공우주법 및 정책, 우주의 광활적 이용, 항공우주법과 산업의 제 문제 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의 항공우주정책에 대한 법적 기반 조성 및 공군의 21세기 항공공간인 우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실무장 폭격시범

10월 14일 항공 50주년을 기념하고, 공군의 위용을 과시함으로써 대국민 신뢰감 및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이번 실무장 폭격시범은 공중 전투기동, 표적식별, 폭격전술, 공중재보급 등을 중심으로 10월 14일 승진사격장에서 실시되었다.

KF-16, F-16, F-5E, A-37B, C-130 등의 항공기 41대가 참가하여 MK-82, LAU-3, CUB-58, AGM-65, SMK 등 한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탄종만을 사용하여 대한민국 공군의 작전수행능력을 유감없이 과시할 것이다.

## 공군 보라매회 초청행사

공군은 항공 5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9월 7일 박춘택 참모총장 주재로 공군 예비역 장교 모임인 보라매회 초청행사를 공군 본부에서 가졌다.

항공 50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의 공군 발전 방향에 대해 선배 장교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권성근 보라매회 회장(예비역 공군 소장, 사후 8기)을 비롯하여 7명의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군 현황 전반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후 공군 항공 50주년 행사를 중심으로 한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는데, 보라매회 임원진들은 항공 5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다양한 기념행사 및 시범행사, 국제 학술회의 등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이외에도 여의도 공군 상징 조형물 건립 추진, 50주년 기념 보라매회 특집 발간, 보라매회의 활발한 운영을 위한 공군의 협조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하였다.

한편, 박춘택 참모총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공군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시고, 후배 장병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선배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올해로 창군 반세기를 맞은 공군 장병들은 늘 뜨거운 애정과 관심으로 공군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 선배 장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본인의 임무인 "영공방위 임무완수"와 "신뢰받는 21세기형 강한 공군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 찬조금 내신 분 감사합니다

(10면에서 이음)

- 박춘택(공사 12기) 공군참모총장
- 박재성(공사 2기) (주)현우개발 대표이사
- 김동호(공사 2기) 재향군인회 직능부회장
- 한주석(공사 7기) 공사 총동참회 회장
- 이양호(공사 8기) 전 국방부장관
- 김홍래(공사 10기) (주)중앙고속 사장
- 이광학(공사 11기) 전 공군참모총장
- 김준수(공사 7기) 공사 총동참회 부회장
- 강상원(공사 7기) 공사 총동참회 감사
- 공영화(공사 7기) 공사 총동참회 이사
- 김인수(공사 7기) (주)남서교역 사장
- 오세창(공사 7기) (주)카메론정밀 사장

- 200만원
- 100만원
- 금일봉
- 500만원
- 금일봉
- 금일봉
- 금일봉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오학수(공사 7기) (주)이화전기 고문
- 정해일(공사 7기) (주)한국전광 감사
- 강영식(공사 7기) 공사 총동참회 사무총장
- 박중주(공사 7기) 공사 7기생회 이사
- 공사 7기생회
- 공사 7기생회원 각각 10만원씩
- 곽석태
- 김석천
- 허두기
- 김수호
- 최인철
- 최규창
- 최창환
- (주)이화전기 고문
- 한국전광 감사
- 공사 총동참회 사무총장
- 공사 7기생회 이사
- 공사 7기생회
- 공사 7기생회원 각각 10만원씩
- 송해혁
- 이환용
- 김인수
- 김윤태
- 신덕식
- 전상환
- 이갑일
- 채인수
- 홍인규
- 김준욱
- 김승수
- 박노진
- 김삼원
- 김태창
- 정구석
- 김국작
- 김정동
- 정상일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50만원
- 500만원
- 310만원

#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 안내

### 1. 推進概要

#### 가. 배 경

- ◆ '97, '98 정기국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 부한요구
- ◆ 재향군인회 및 상우회 등 군 관련단체에서 부한요구
- ◆ 국방부장관 부한검토 지시('98. 12. 24.)
- ◆ 국방부 3사체전 실시 결정 및 계획 하달('99. 2. 6.)

#### 나. 목 적

- ◆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를 통한 군의 단결과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국방상 구현

#### 다. 시행중점

- ◆ 건군 51주년 국군의 날 행사 일환으로 종합체육대회 추진
- ◆ 국민과 함께 하는 축제로 승화시키며, 겸손하게 준비
- ◆ 각 군의 단결 및 사기고양, 50년의 사관학교 전통유지
- ◆ 적극적인 대 국민 홍보

### 2. 行 事 計 劃

가. 기간 및 장소 : '99. 10. 8.(금)~10.(일), 동대문운동장  
 나. 종목 : 럭비, 축구(종합 우승제 폐지, 종목별 우승, 응원상)  
 다. 일정별 행사 내용

일 시	공 식 행 사	친 선 행 사
10. 8.(금) 12:00~17:00	- 개회식(13:00) - 럭비경기(공사:해사, 13:40) - 축구경기(해사:육사, 15:30)	- 식전행사 : 의장대/취타대 시범(12:00) - 태권도 시범(15:00) - 모형항공기 비행(공사, 16:10)
10. 9.(토) 13:00~17:00	- 럭비경기(육사:해사, 13:40) - 축구경기(공사:육사, 15:30)	- 민군 친선행사 : 깃발을 잡아라(13:00) - 민군 한마당 합창(15:00) - 용놀이(해사, 16:10)
10. 10.(일) 13:00~17:40	- 럭비경기(공사:육사, 13:00) - 축구경기(공사:해사, 14:40) - 폐회식(16:40)	- 축구 묘기대행진 및 태권무 시범(14:20) - 북청 사자놀이(육사, 15:20)

### 3. 代 表 生 徒 訓 練

#### 가. 경기지도부 운영

- ◆ 공사 생도대 예하에 대표생도 관리/훈련부서로서 경기지도부 신설

#### 나. 대표생도 선발

#### ◆ 선발기준

- 체력검정 우수생도(상위 10%)
- 학업 및 내무성적 우수생도
- ◆ 대표생도 인원 : 69명(축구 : 30명, 럭비 : 39명)

#### 다. 관리 및 훈련방침

- ◆ 국방부 시행 지침 적극 준수
- 체육시간 활용 훈련(정규학과 및 군사훈련 시간 준수)
- 하기 군사훈련 중 필수훈련 참여
- 인성교육, 교양 강의 및 지휘관 정신교육 필히 참석
- ◆ 대표생도 선발
- 규정된 입학절차에 의거 합격한 인원 중 선발
- 고교시절 체육특기생을 비정상적으로 합격시켜 관리하는 것은 금지

#### 라. 훈련현황

- ◆ 단계별 훈련내용
- 1~3단계(3. 15.~9. 11.) : 기초체력/기본기 숙달
- 4단계(8. 9.~9. 11.) : 경기 운영 능력/실전 경험 부여
- 5단계(9. 12.~10. 7.) : 팀 전술완성/최상의 컨디션 유지

#### ◆ 훈련시간

- 월~금 : 7~8교시(15:30~18:00)
- \* 1~6교시 정규 학과 수업

#### ◆ 훈련성과

구 분	기 량 수 준	
	최 초	현 재
축 구	중학교 수준	중위권 고교 수준
럭 비	-	상위권 고교 수준

#### ◆ 향후 훈련 계획

- 대표생도 자체 경기 운영 능력 강화
- 정신력 강화 및 컨디션 조절
- 외부팀 초청 기량 습득 훈련

### 4. 應 援 訓 練

#### 가. 방 침

- ◆ 공사 전통과 맛을 표출하는 응원
- ◆ 절도와 패기 있는 군인상 과시
- ◆ 참신한 공군/공사 이미지 표현 주력

#### 나. 응원내용

- ◆ 인원 : 총 527명(지휘부 : 27명, 본대 : 420명, 군악대 : 80명)
- ◆ 응원구성 : 총 5종류, 19개

#### 다. 단계별 훈련

- ◆ 응원훈련 : 총 90시간
- 1단계(8. 16.~27.) : 기본 교육(16시간)
- 2단계(8. 30.~9. 30.) : 반복 숙달 훈련(62시간)
- 3단계(10. 4.~6.) : 종합 훈련(12시간)



## 空軍士官學校 校旗 作成 由來와 意味

### 1. 圖 案 作 成 의 經 緯

본인이 空軍士官學校 生徒로 在學時(1950~1953)의 어느날 士官學校 本部의 指示로 各 候補生 中隊로부터 그림에 素質이 있는 者들이 4~5名 差出되어 學校 本部의 어느 別室에 모여 空軍士官學校 校旗의 圖案을 作成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에 모인 人材를 教育, 訓練, 排出하는 機關임을 象徵합니다. 다. 旗面의 下端에는 '空軍士官學校'라는 學校 名稱을 漢字로 넣었습니다. 라. 本 旗의 圖案은 旗面의 縱橫 比率이 正確하게 2:3의 比率로 作成되어 있습니다. 矩形은 그 縱橫비가 2:3일 때에 가장 아름답고 均衡이 잘 맞는다는 것이 美術界의

感되며, 後에 靑瓦臺 第2 經濟首席 秘書官을 지낸 吳源哲 候補生이 技術將校 候補生 代表로 參席하였고, 本人은 第2期 士官生徒 代表로 參席하였습니다. 이 때에 모인 代表들은 各自 한 가지씩의 圖案을 作成 提出하기로 하고 4~5件의 圖案을 作成 提出하여 學校 當局의 審議를 받은 結果, 本人의 案이 가장 좋다는 結論이 내려져서 다시 다음은 最終圖 案으로 決定되었으며, 당시 당선 賞금도 받았습니 다. 그 圖案은 다음과 같은 趣旨로 作成된 것

이었습니다.

### 2. 圖 案 의 趣 旨

가. 바탕의 푸른색은 空軍과 하늘을 象徵합니다.

나. 本 校 旗 圖案은 다음과 같은 뜻을 갖습니다. 독수리는 하늘의 王者이며, 支配者임을 象徵하며, V字 模樣으로 퍼 올린 날개 模樣은 우리의 旺盛한 攻擊精神과 勵志를 나타내며, 또한 勝利를 象徵합니다.

士字는 士官學校를 象徵하며, 또한 선비와 文의 精神을 強調하고 있으며, 위 의 독수리가 象徵하는 武의 精神과 더불어 文武兼

備의 思想을 나타냅니다.

士字를 둘러싸고 있는 14개의 별은 大韓民國의 14個道를 象徵하며, 空軍士官學校는 國家의 中心에서, 在校中 및 任官後에 國家의 中心이 되는 人材를 教育, 訓練, 排出하는 機關임을 象徵합니다.

다. 旗面의 下端에는 '空軍士官學校'라는 學校 名稱을 漢字로 넣었습니다.

라. 本 旗의 圖案은 旗面의 縱橫 比率이 正確하게 2:3의 比率로 作成되어 있습니다. 矩形은 그 縱橫비가 2:3일 때에 가장 아름답고 均衡이 잘 맞는다는 것이 美術界의



金聲坤(2기)

定說로 되어 있습니다.

3. 圖案이 確定된 다음에 어느 有名 畫伯에게 委屬하여 校旗의 그림을 그렸다는 말을 들었으나 遺憾스럽게도 그분의 尊脚을 記憶하지 못합니다.